

등하굣길 어린이를 지켜주는 발명품 뭐가 있지?

스쿨존 내 필수 시설을 강조하고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스쿨존 내 사고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를 방지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책임질 새로운 교통안전 기술을 알아볼까요?



1. 등하굣길 로봇 친구 '로팻'

어린이가 로팻을 어깨에 얹고 사전에 등록된 안전 확인 지점에 가까이 가면 로팻이 진동하여 어린이에게 주의를 줍니다. 또한 학부모는 어플을 통해 아이의 위치와 등하교 기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라이다'

'라이다(LIDAR)'는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춰 되돌아오는 속도를 계산해 물체와의 거리, 크기 및 속도 등을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LED전광판 등을 통해 교통 안전정보를 음성과 화면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인 '스마트 횡단보도'와 연계하면, 과속차량, 무단횡단 보행자 발생 등의 안전정보 전달이 가능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스몸비 안전사고 예방 '바닥신호등'

'스몸비족'은 스마트폰에 주의를 빼앗겨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의 점자블럭 주위 보행자 대기선에 매립 설치된 보행신호등입니다. 이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 신호등과 똑같은 색으로 바뀌어 바닥으로 시선이 가 있는 '스몸비족'이나 시야가 땅과 가까운 어린이의 교통사고 원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등하굣길 로봇 친구 로팻

어린이가 로팻을 어깨에 얹고 사전에 등록된 안전 확인 지점에 가까이 가면 로팻이 진동하여 어린이에게 주의를 줍니다.

또한 학부모는 어플을 통해 아이의 위치와 등하교 기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라이다

'라이다(LIDAR)'는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춰 되돌아오는 속도를 계산해 물체와의 거리, 크기 및 속도 등을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LED전광판 등을 통해 교통 안전정보를 음성과 화면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인 '스마트 횡단보도'와 연계하면, 과속차량, 무단횡단 보행자 발생 등의 안전정보 전달이 가능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몸비 안전사고 예방 바닥신호등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의 점자블럭 주위 보행자 대기선에 매립 설치된 보행신호등입니다. 이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 신호등과 똑같은 색으로 바뀌어 바닥으로 시선이 가 있는 '스몸비족'이나 시야가 땅과 가까운 어린이의 교통사고 원인을 사전에 제거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스마트한 기술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두의 교통안전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스마트한 기술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두의 교통안전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출처 : 특허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4가지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것
들이 있을까요?



1.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반영
- (적색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함.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가능
-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②)

2. 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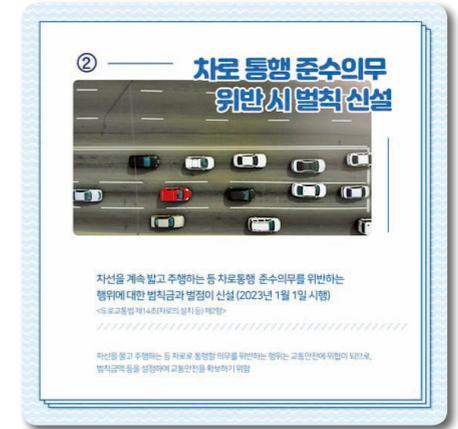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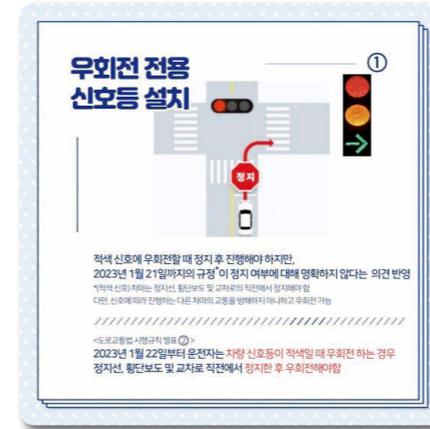
-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신설 (2023년 1월 1일 시행)
-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 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3. 주·정차된 차량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차·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시의 범칙금(6만원) 신설 (2023년 1월 1일 시행)
-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 개선

4.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는 벌칙 규정에 대한 위헌 사유를 보완한 개정 규칙 시행(2023년 4월 4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2023년 달라진 교통관련 제도와
정책 1편을 알아보았습니다.
곧 2편에서 뵙겠습니다.

출처 :
경찰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